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7차 세션, 마무리 , 골로새서 4장

© 2024 댄 다코와 테드 힐드브란트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7, 마무리, 골로새서 4장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콜로새서라는 멋진 서신을 우리와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콜로새서에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서론 자료를 살펴보고 1장, 2장, 3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2장과 3장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교회 내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범위를 좁혔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는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이상한 악센트로 말했던 걸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는 그 위에 거짓 가르침의 몇 가지 요소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교회가 믿음에 따라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세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은 가정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재밌는 단어를 보았을 것입니다: *Haustafel*. *Haustafel* 은 가정법과 같은 가정 규범을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학자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여 바울의 논의나 가정 관계에 대한 신약의 논의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의 보호막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가족이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내적 담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가진 진정한 자질에 대해 사회에

실제로 말할 연대, 우호, 예의가 있을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깥을 바라보는 큰 전환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여기이며, 바울의 마지막 훈계와 마무리 발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몇 가지 마커를 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은 손전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테스트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올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2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은 콜로새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시험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첫째, 바울이 콜로새서에 쓴 편지를 다른 교회에 전달해서 읽어달라고 직접 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바울이 개인적인 인사를 쓰는 방식에 대해 매우 중요한 관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신약성경을 읽는 당신의 독서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 중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 당신이 신약성경의 이 부분을 실제로 좋아할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사를 관찰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가져온 세부 사항도 관찰하십시오. 그 세부 사항은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콜로새서에 대한 논의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콜로새서의 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가 4장에서 가져온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관찰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바울을 아는 사람이나 바울의 사역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설득하거나 설득하여 바울이 어떻게든 이 편지를 썼다고 믿게 하려고 이 정보를 내놓았을까요? 바울이 이 논의에 가져온 세부 사항이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실제로 바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배신하여 이 편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세부 사항은 바울 외에는 아무도 이 편지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바울이 18절에서 보듯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은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를 포함한 여러 서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초기 관찰을 할 때, 거기에서 세 번째 관찰을 주목하세요. 바울이 영적 훈련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가 독자의 주의를 기독교적 삶에 대한 헌신으로 이끄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바울이 관계에 관심을 갖는 방식을 관찰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것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 바울의 인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좋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의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4장 2절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구절은 종종 보듯이 제가 기도와 규율에 대한 주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기도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번역에서 다른 학자들이 그 표현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바울이 실제로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내부 논의와 그가 하려는 일 사이의 연결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초점은 이때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장, 마지막 몇 구절, 또는 바울의 글의 앞부분 에서 기도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바울은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콜로새서를 첫 장부터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끝맺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가 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특히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모범으로서 그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유혹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복음서에서 그가 생애의 마지막에 기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복음서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가 얼마나 자주 멈추어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자주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때때로 제자들을 불러서 “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러설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실제로 나가서 혼자 계셨습니다. 바울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가 겐세마네 동산에서처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저에게 바울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강조되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콜로새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헌신하라고 주의를 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올바른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경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는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에서, 주의하거나 경계한다는 언어는 보통 마지막 때나 종말론적 계절 때문에 주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기서 그는 당신이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그것을 열어 놓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가르침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짓 가르침과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것들의 영향에 취약하거나 잠재적으로 취약한 초기 신자들은 경계하고, 경계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경계해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힘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구할 때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두 번째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와우. 바울의 이런 자질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감사를 가져왔는지 콜로새서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콜로새서 1장으로 돌아가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시작했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듣고 하늘에 너희를 위해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는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서, 그에 대한 토론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10절이나 11절에서 바울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해져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고, 우리 죄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장에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가져와 함께 모읍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던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가끔씩 성경 퀴즈를 풀고, 무료 성경을 받고, 가끔은 우리가 아는 구절을 암송하면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마도 실제로 당신에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물어본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라는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톤은 그들이 그 기도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ESV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실제로 그리스어에 없는 단어를 제공하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정신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감사의 감각을 잊었다면, 1장에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권능으로 힘을 얻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참을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께 감사를 드리는 것 .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도록 자격을 주신 아버지 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할 만한 일입니다. 이 콜로새서 토론에서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는 또 다른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바울도 감사를 강조합니다. 6절과 7절에서, 그 강의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문제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특정한 마음의 문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굳건히 세우면서 감사가 가득하거나 가득합니다. 3장에서 감사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절 끝에서 그는 이 감사나 고마움을 다시 꺼내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16절로 계속하고, 17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구절인 골로새서 4장 2절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 즉 콜로새서에서 그의 논의의 마지막 부분을 이 구절로 시작할 때,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교회에 감사하는 정신을 갖도록 격려하는 기독교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때때로 심술궂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투덜거림 아래에는 배은망덕함과 권리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 신이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 그들은 신이 자신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신은 그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할 빛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울은 콜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태도이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권리와 의지를 행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잠시 멈추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수록 나는 나 자신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거나 배은망덕한 것은 불화의 씨앗 중 하나이며,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온갖 생각을 커뮤니티로 끌어들이습니다.

바울이 거짓 가르침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방금 언급한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사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구체적인 기도 요청으로 이끕니다.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올바른 태도로 기도를 계속한다면, 바울은 그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위한 문이 그에게 열리도록 그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3절을 읽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내가 갇힌 이유이며,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위한 문이 열리도록 기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잠깐 멈춰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복음을 위해 비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통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항목은 무엇이였을까요? 지금 당장이나 내일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제 복음이 다 죽어서 제가 그냥 몰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죽어서 파일을 놓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사건을 기각해서 제가 자유로워지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바울은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감옥 문이 그를 막지는 못했고, 그가 보낼 첫 번째 기도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이 그들에게 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를 감옥에 보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유대인의 언약 공동체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데려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안으로 연합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9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열린 문이 거기에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린 문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상상해보세요.

감옥 경비원이 주변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감옥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택연금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놓을 첫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자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정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한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가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서 중얼거리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이 그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와우. 그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모호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제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처럼, 기도가 제 삶에서 얼마나 자주 최우선 순위에 놓이는가를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콜로새인들이 채택하거나 발전시킬 라이프스타일로만 보지 않고 이 분야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저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21세기에도 제 주변의 모든 형태의 가르침, 모든 형태의 속임수에 오염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바울은 이 기도를

요청한 후 제가 결론적 훈계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핵심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5절의 결론적 훈계에서 그는 외부인에 대해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에 주목하세요. 어떤 번역자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외부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명해지세요. 이 강의에서 앞서 설명드린 단어, 여기서 걷는다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명해지세요.

지혜롭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의 이해에 따르면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적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에도 지혜를 적용합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대하는 방식,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내리는 결정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방식,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선택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커플과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슴에 여러 개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문신 때문에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문신을 가릴 웨딩드레스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제가 문신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이 소녀가 내린 결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삶의 선택을 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녀가 인생에서 내린 특정한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에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혼란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문신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콜로새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워지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요. 외부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깥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봐 매우 걱정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타협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높은 도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명하세요. 행동하는 방식은 여러분과 신앙 공동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우리를 보는 방식에도 유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다른 중요한 훈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이나 제 언어를 용서해 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간은 실제 스위스 시간보다 한 시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5시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어는 이렇게 읽힙니다. 여기서의 비즈니스 용어로 사용됩니다. 시간을 사다, 시간을 사다.

시간을 붙잡지 마십시오.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시간과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시간을 붙잡고, 모든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게 하신다면,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질문은 시간 관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24살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이시여, 저는 하루에 8시간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24살이고, 사실 제 인생에서 8년을 잤습니다. 그리고 신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계속하자고요. 그리고 당신은 말씀하실 겁니다. 글썄요, 제 인생의 어떤 부분은 일하러 갔고, 어떤 부분은 부모님을 위해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일과 직장을 위한 일을 합치면, 아마 남은 16년 중에, 아마, 아마 6년을 일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오,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10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 신이시여, 어쩌면, 어쩌면 그 중 다섯 번을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는 데 썼을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신이 뭐라고 하실지 상상이 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다섯 년? 이건 과장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마지막 훈계에서 가능한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 실수를 할 수 없고, 삶을 살고 잘 처신하는 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매우 중요한 부분, 즉 말투, 말하는 방식, 대화에 대해 언급합니다. 대화는 항상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대화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은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것이 진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울은 콜로새인들에게 한 결론적인 훈계에서 감동을 주었고,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시간, 푸에르토리코 시간이라는 건 없어. 시간이라는 게 있어. 5시는 5시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관찰할 때, 바울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언어입니다. 외부인이든 내부인이든, 당신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말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경계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 위해 올바른 태도나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모두 당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와 제 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쩌면, 어쩌면 그게 다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당신이 잊을 수 없는 핵심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잊는다면, 당신은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우아하게 적절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말에 소금을 뿌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땅의 소금이 되고 맛없거나 쓴 것에 단맛과 풍미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의에서,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교화하고, 축복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는 언어나 어법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로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알아야 할 몇몇 핵심 인물과, 그들이 무언가 안다면 그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몇몇 핵심 인물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 토론에서 저는 7절에서 18절까지를 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콜로새에게 편지를 전할 사람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함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감옥서신에서 다른 편지를 읽을 때 그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의 인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회람하거나 적어도 콜로새에서 12마일 떨어진 라오디게아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의 동료 중 한 명에게 잠깐 주저하는 모습과 그의 마지막 서명을 볼 것입니다. 그럼, 그가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보낸 메모를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때때로 그의 이름은 티키쿠스로 발음되는데, 그는 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목사요,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종입니다. 저는 그를 보내는 명확한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인 오네시모와 함께 옵니다. 그는 여러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와 티키고가 감옥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특정한 의사소통 사명을 주어 당신에게 특정한 것들을 전달하도록 보냅니다.

그 소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그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당신에게 전할 것입니다. 9절에서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티키고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당신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당신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 티키고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에 대해 설명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죠. 그가 바울과 함께 있는 누군가이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면, 사실,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편지를 주지 않고, 그저 콜로새로 가서 편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만 편지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보내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는 신의 가족의 형제입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그는 충실한 목사다. 충실한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둔 사람이나 신뢰할 만하거나 진짜인 사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티키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제 평가입니다. 그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doulos , 주님 안의 종 임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함께 섬깁니다. 그는 우리의 사명을 공유하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봉사해 온 사람입니다.

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궁금하다면, 폴은 이 사람과 얼마나 자주 일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폴의 글에 몇 번 나오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21-22에 있는 콜로새서 시험과 유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요 주님 안에서 충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너희의

마음을 격려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는 것은 동일한 평행 구절입니다.

콜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많은 단어가 겹칩니다. 여기에는 두기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강의에서 나중에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출하고 싶은 이유이며, 사실 바울은 콜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고 두기고와 두기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에베소는 불과 120마일 떨어져 있고 이 서신들을 전달합니다.

이런 종류의 중복과 같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엄청난 우연이고, 만약 그것이 속임수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알아차릴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티키고, 디도서 3:12. 여기서 우리는 목회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르테미스나 티키고를 너희에게 보낼 때,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디도에게 한 지시입니다. 디기고는 바울이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아차리셨나요? 그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그는 그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사람 티키고에 관해 다른 동료들 대할 때 에베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다면, 때때로 잠시 멈추어 묻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기고의 이름을 보낸 또는 보낸이라는 단어 없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글썄요, 중요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업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례에서 바울이 자신의 절친한 동료인 두기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형제, 충실한 목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중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대신하여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라는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설명하는 자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알게 될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9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그와 함께 티키고, 오네시모가 언급됩니다. 오네시모는 우리의 충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여러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쓰여진 노예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도달하면, 나는 당신에게 그 관계에 대해 더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 교회에서 온 것 같다고 언급하고, 그들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지역 사회에서 알고 있었고, 바울은 그와 함께 티키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 뭔가 알아차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정한 질을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티키고에 대해 그렇게 했고,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아침이 아니라 칭찬과 진실성의 관점에서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따르는 리더라면,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폴에 대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편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질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폴은 그의 친구들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가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 모든 위대한 칭찬의 말을 전했으므로, 이제 그는 몇몇에게 인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동료 죄수 여러분, 나의 동료 죄수인 아리스타르코스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온다면 그를 환영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를 지금까지 편지에서 본 다른 예수와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도 당신이 그를 오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싶어합니다. 이 예수는 또한 유스투스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라틴 이름입니다. 그는 또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위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빨리 넘어가기 전에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기 전에, 그는 아리스타르코스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가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를 아리스타르코스와 분리하여 당신이 그에 대해 실제로 들었고, 자유인인 마가가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가 나타나면 그를 환영하십시오.

당신은 그가 인사를 하는 방식과 전개를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매우 흥미로운 것, 또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싶어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져 있지만, 유스투스라는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라틴어 이름인 유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이들은 나와 함께 있는 유일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1세기에 돌아다니며 유대인 남자를 "야, 유스투스"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라틴 문화를 이해한다면 다르게 들립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전화를 걸어 라틴어로 된 동등어를 알려주거나 뭐 그런 걸 하죠. 저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그게 내 생각일 거야. 아닐 수도. 하지만 풀은 어쨌든 그를 언급해.

바울이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는 일찍이 그를 언급했고, 저는 일찍 강의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바브라, 너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오네시모가 너희 중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그는 에바브라, 너희 중 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티키고에 대해 말할 때 준 자격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는 인사합니다. 그는 항상 무엇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익숙한 말인가요?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바울에게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바울은 에바브라가 교회를 시작한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온전히 확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그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서론에서 콜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삼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기억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가까운 도시들입니다.

하나는 12마일 떨어져 있고, 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에바브라가 여기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에바브라가 여기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는 루크입니다. 루크, 의사.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루크가 의사였다고 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당신은 단지 바울이 우리에게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말해주는 곳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의사. 그리고 그는 데마스를 언급했습니다. 데마스가 인사를 전합니다.

데마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디모데후서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단계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아무것도 불안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마스에게 그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전해주시시오.

그리고 님파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당신은 그 호소를 계속합니다. 이 편지를 당신에게 읽은 후에, 나는 당신이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자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와우.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16절에서 재빨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히게 하고, 여러분은 차례로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읽으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글쎄요, 확실히, 콜로새서는 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추측 주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니 그들에게 맡겨두자. 아니면,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두라고 말할 수 있겠다.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키보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 권면을 전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르키보,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완수하도록 주의하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콜로새서를 끝낼 것입니다. 18절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절로, 실제로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거나, 그가 직접 편지를 쓰고 끝에 서명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18절은 콜로새서를 쓴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콜로새서를 쓰지 않았다면, 누가 이 글을 거기에 썼든, 만약 바울이 콜로새서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면, 누가 이 글을 거기에 썼든, 그는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콜로새서와 콜로새서가 쓰여진 날짜를 어디에 두든, 교회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유스투스 의 기도와 씨름을 강조하려고 했을 때 에바브라를 언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스투스를 의미했습니다. 에바브라, 오디세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우리가 아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누군가가 편지를 위조해서 이 구절을 아래에 넣고, 교회에 두고, 우리는 바울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정확히 알고, 누군가가 가져온 이런 종류의 허구적 요소를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요즘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콜로새서를 썼다고 믿습니다. 그는 콜로새서를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의 침투나 출현 또는 발전을 다루기 위해 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교회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삶과 헌신으로 부르면서, 그는 교회 내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 도전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는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사고방식으로 연합하여 함께 일할 때, 그것이 그들 자신의 가정에서도 삶에 반영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장에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일상 생활의 일부로 삼으라고 촉구하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삶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관찰하고, 현명하게 되고,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방식에 주의하여 외부인에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편지를 전달할 사람과 그와 함께 봉사해 온 사람 모두의 구체적인 이름을 인사하고 언급할 것입니다.

제가 콜로새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가 얼마나 멈추고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아는 바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지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빨리 말합니다.

그는 “나는 누군가를 매달아, 나는 누군가를 사탄에게 매달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혹한 말들. 하지만 풀은 또한 “나는 올바른 사람들을 알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 미덕 중 일부를 배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관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기반을 둔 기독교적 삶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콜로새서에 대한 여정이 성장하는 경험은 아니더라도 배우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감옥 서신에 대한 이 성경 연구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배우십시오.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은 풀에 대해, 여러분의 삶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시간을 내주셔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마무리, 골로새서 4장입니다.